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 8~18개월 영아의 단기종단연구

이 지 연
서울대 심리과학연구소

장 유 경
한글교육문화연구원

본 연구는 영아초기 어휘 발달의 안정성과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393쌍의 어머니와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8, 12, 15, 18개월에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휘 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영아초기 어휘발달은 시간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특히 이해어휘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는 표현어휘와 상관성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어휘들 간 상관성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둘째, 영아가 습득한 12개월 어휘 수는 18개월 어휘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셋째, 이해어휘는 표현어휘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월령별로 습득한 어휘 내용을 통해, 영아초기 어휘는 의사소통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초기 어휘 발달은 안정적이며, 따라서 초기(12개월)에 습득한 어휘 수에 근거하여 이후 영아의 어휘발달을 예측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어 : 영아초기, 표현어휘, 이해어휘, 안정성, 의사소통기능

언어란 사회적으로 공유된 부호이며, 임의적 상징과 규칙에 따른 이 상징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개념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체계이다(Owens, 2001). 언어는 양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사물에 대해서 행위하는 수단과 사물에 대해 반성하는 수단이 된다. 즉 대인관계적 기능과 관념적 기능이다(조명환, 1982;

Halliday, 1974; 1975).

대체로 출생 후 1년에서 1년 6개월에 걸치는 시기는 단일 단어 시기이며, 이 시기의 언어 분석은 의미 기능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측면에 무게를 두게 된다(조명환, 1982).

영아초기에 나타나는 단어는 참조물에 대한 상징적 언어와 구분하여 수행적 행위(Bates,

본 연구는 2002년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한 기초학문육성성과제(과제 번호: KRF-2002-074- HM1006)의 일부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교신저자 : 장유경, E-mail: ykchang24@hanmail.net

Benigni, Bretherton, Camaioni, & Volterra, 1977)와 동작충족적 기능(이승복, 1982)으로 설명될 수 있다. Bates(1976)는 9개월이 되면 영아는 양육자와 까꿍 놀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즐기면서 말소리(vocalization)를 낸다고 하였다. 12~18개월 사이에 영아는 “빠이빠이”같은 한 단어 반응을 하는데, 개념을 표상하는 진짜 단어(true word)라기 보다 양육자와의 물리적 상호작용의 일부이다. 이때의 발화를 ‘수행적 행위(performative act)’라 불렀다. 이승복(1982)은 발화와 동작과의 관련성을 통해 단어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이승복(1982)에 따르면, 대략 10개월경에 등장하는 첫 단어들은 언어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언어 표현을 고려하지 않아도 그 상황에서의 몸짓이나 상황적 단서로 영아의 말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 단어는 동작을 떠나서는 의미가 없으며 동작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빠이빠이”는 배움을 하는 인사가 아니라 단순히 손을 흔드는 동작의 일부이다. 이때 동작을 제거하면 의미를 옳게 이해할 수 없으며, 말에 동작이 수반된다기 보다는 동작에 말에 수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나타나는 실행하기, 부르기, 요구하기와 감탄하기라는 의미론적 기능을 동작충족적이라고 규정했다. 이후 12개월이 되면 언어 그 자체의 소리와 의미로 분화되어 사용하기 시작한다. 즉 단어가 참조의 기능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의 단어는 이전처럼 요구하기의 기능도 하지만, 대상에 대한 참조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참조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대상의 이름이다. 그러나 어떤 단어가 참조하는 의미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사전적인 의미와 다를 수 있다. 또한 영아의 단어의 의미는 성인의 것과는 다르다. 본래의 단어 의미가 가리키던 대상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상황 전체를 단어가 참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황적 의미표현이다. 이후 어휘 수가 증대하면서,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 특정한 어휘를 사용할 폭이 커진다. 예를 들면, 10개월에는 “맘마”라는 어휘로 먹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표현했다면, 13개월에는 받아먹을 때 입을 벌리는 행위에 대해 “아이”라고 하고, 14개월부터는 컵에 넣고 마시는 모든 것에 대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또한 15개월에는 “까까”라는 말로 과자를 먹는 사건을 표현한다. 이처럼 영아는 언어로써 참조하는 바를 분명하게 분화시켜 가는 동시에 상황의 몇 가지 측면을 다른 표현 방식으로 분화한다. 특히 동사의 등장은 의미 기능이 분화된 증거로 볼 수 있다. 동사는 행위자-행위의 의미 관계를 표현한다(이승복, 1982).

이상의 연구를 통해, 영아초기 언어는 의사소통적 기능이 강한 언어적 표현이며, 12개월 이후 표상적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아초기 언어의 특성은 이 시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발달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영아초기 어휘 발달의 특징 중 하나는 초반에는 어휘들의 습득속도가 느리지만 16~17개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McCarthy(1954)는 적절한 상황에서 의미 있게 일관적으로 사용되는 처음 몇 단어들이 등장한 이후 어휘에서 갑작스런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처음 단어들은 전형적으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습득되며, 나중에 보다 빠

른 속도로 축적된다. 자신의 딸의 초기 언어에 대한 일기형식 연구에서, Bloom(1973)은 첫 단어는 9개월에 등장하고, 14개월이면 25개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며, 17개월에는 어휘 수에서 급속한 증가를 보인다고 하였다. Caselli, Bates, Casadio, Fenson, Fenson, Sanserl과 Weir(1995)의 연구에서 8개월에 미국 영아는 표현 어휘가 1.8개, 이태리 영아는 1.1개, 12개월에는 미국과 이태리가 각각 10개와 9개, 16개월에는 64개와 27개였다(Bates, Dale, & Thal, 1995). 한국 영아의 경우, 8개월에는 2.2개, 12개월에는 12.8개, 16개월에는 40개였다(장유경, 2004a). 어휘 발달의 이정표가 되는 표현어휘가 50개가 되는 시점은 17개월이고(장유경, 2004a), 100개 어휘를 습득하는 시기는 20~21개월 사이이며, 36개월이 되면 약 500개의 표현어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경, 2004b).

이처럼 어휘 성장은 처음에는 느리게 진행되어 얼마동안은 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어떤 단어는 아이의 흥미가 변하고 산출능력이 개선되면서 없어지기도 한다(McLaughlin, 1978). 그러나 어휘 성장속도는 아이가 50단어 지표에 가까이 가면서 지속적으로 빨라진다. 18개월 이후는 어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개인에 따른 상당한 변이가 있다. Bates 등(1995)은 8~30개월의 1803명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휘 발달이 가속을 보이는 것은 50개와 100개 사이에 가장 분명하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14~16개월 사이에 어휘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영아의 경우(장유경, 2004a)에도 17개월경에 50개 이상의 어휘를 표현하는 영아들은 이후 급격

하게 어휘를 습득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어휘발달의 안정성

장유경(2004a)의 연구에 따르면,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모두에서 개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8개월에 이해어휘가 0인 영아가 있는 반면, 106개인 영아도 있고, 17개월에 표현어휘가 0인 영아가 있는 반면, 228개인 영아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휘발달은 상당한 개인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차는 영아기 동안 유지되는 안정적인 특성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개인차가 안정적이라면, 초기에 습득된 어휘에 기초하여 이후 언어발달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어휘 발달의 안정성에 관련된 증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다. Daneman과 Blennerhassett(1984)는 단어학습이 언어능력을 포함하고 있음을 제안하였고,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기존의 어휘 능력이 이후 어휘습득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Nicholson & Whyte, 1992; Penno, Wilkinson, & Moore, 2002; Robbin & Ehri, 1994; Senechal, Thomas, & Monker, 1995). Senechal 등(1995)은 낯선 단어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단어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에 기존의 단어지식이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가정하였다. 이처럼 언어능력이 높은 아동이 언어능력이 낮은 아동보다 어휘 습득에서 유리하며 수행이 뛰어난 현상을 마태효과(Matthew effect)(Stanovich, 1986)라 하였다. 마태효과는 언어능력의 안정성, 즉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다. 또한 Thal, Swain, Harrison과 Matt(1998)는 10, 13, 16개월에 어휘를 측정하여 발달과정을 분석하였다. 이 시기에 표현의 지체를 보이고(하위 10 퍼센트) 이해는 지체를 보이지 않는(하위 10 퍼센트에 속하지 않는) 영아들은 정상아들에 비해 단어 산출은 낮지만 단어의 이해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반해 표현과 이해 모두가 지체된 영아는 단어산출과 단어이해는 모두에서 정상아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최소한 동일 유형의 어휘는 발달적 안정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주로 학령 전 아동이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Senechal et al., 1995)이거나 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보인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Thal et al., 1998)이다. 따라서 정상 영아의 영아 초기 언어발달에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본 연구는 정상 영아들을 대상으로 8~18개월 사이에 습득한 어휘들의 시간적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영아초기 언어발달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어휘발달의 안정성과 관련된 또 다른 의문은 언제부터 안정성이 견고해지는가이다. 이것은 언제 언어를 측정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의문과 관련 있다. Reznick과 Goldfield(1992)는 500명의 부모에게 자녀의 언어에 대한 어휘체크리스트를 6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여 검사-재검사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른 월령에서는 .80~.90의 상관을 보였으나 12개월에서만 상관이 .60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불연속성은 12개월에 발생하는 인지의 재조직화(McCall, Eichorn, & Hogarty, 1977) 혹은 ‘실제 단어’에 대한 부모

의 준거 변화(Bates et al., 1995)로 해석되었다. Bates 등(1995)의 연구에서도 12개월에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모두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Thal 등(1998)도 10개월 어휘로 16개월 언어지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발달의 안정성은 12개월 이후에 보다 확고해 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횡단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석이 제한적이다.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발달적 관계

영아기 어휘 발달의 또 다른 특징은 이해어휘와 표현어휘간의 발달 차이이다. 이 두 종류의 어휘는 수와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습득 어휘 수에서 두 어휘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영아들은 스스로 표현하는 어휘보다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 말을 직접 산출할 수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Hirsh-Pasek & Golinkoff, 1991; Oviatt, 1982). Goldin-Meadow, Seligman과 Gelman(1976)의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2세 영아에게 보통명사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도록 요구했을 때, 영아들은 자신이 산출한 어휘의 2~3배 정도 많은 어휘를 이해했다. 장유경(2004a)의 연구에서도 8~17개월 사이에 한국영아들은 표현어휘보다 3배정도 더 많은 이해어휘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단어를 이해하는 시기는 11~12개월 사이인 반면, 50단어를 표현하는 시기는 17개월이었다.

이처럼 동일시기에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습득 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표상능력과 같은 인

지적 차이가 아닌, 말하는 것에 대한 성향(예: 어떤 아동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까지 기다린다; Bates, Thal, Fenson, Whitesell, & Oakes, 1989) 혹은 음운 조음(phonological-articulatory) 능력(Huttenlocher, 1974)의 발달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말할 기회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결과는 책읽기와 같은 연구들에서 찾을 수 있는데, Senechal(1997)의 연구에서 실제로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표현어휘 습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결과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는 출현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서로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더 많은 어휘를 이해하는 영아가 더 많은 어휘를 표현하는 경향을 보였다(Bates, Bretherton, & Snyder, 1988; Bretherton & Bates, 1984; Tamis-LeMonda, Bornstein, Cyphers, Toda, & Ogino, 1991).

그러나 다른 연구 결과는 두 종류의 어휘 간 분리 가능성을 제기하였다(Bates et al., 1995; Thal et al., 1998). Bates 등(1995)은 8~16개월 집단을 이해어휘 0-20개, 21-50개, 51-100개, 101-150개, 151-200개, 200개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표현어휘 수의 평균, 평균+1.28 표준편차(M+1.28SD), 평균-1.28 표준편차(M-1.28SD)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이해어휘가 200개 이상인 집단에서 평균-1.28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표현어휘 수는 0개였다. 이 현상에 근거하여, 이해어휘와 표현어휘간의 분리(dissociation)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어휘가 증가하면 표현어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 결과가 두 종류의 어휘 간 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상의

연구들은 횡단적 설계로 인해, 시간적 변화에 따른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간 관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음으로 이해어휘와 표현어휘간의 발달적 관계에 관한 두 번째 주제는 습득한 단어 내용에서의 차이에 대한 것이다. 즉,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습득하는 이해하는 단어와 표현하는 단어가 동일한가 혹은 다른가?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다. 만일 단어들이 동일하다면, 인지적 제약성(Markman & Hutchinson, 1984)과 같은 공통적인 습득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습득하는 단어들이 다르다면, 어휘를 사용하는 맥락에 근거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agent)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현어휘를 사용하는 주체는 아동이며, 따라서 아동의 의도, 생각, 및 정서가 반영되는 반면, 이해어휘를 사용하는 주체는 타인으로서,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반영한다. 실질적으로 초기에 습득한 단어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 두 가능성을 모두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는 전반적으로 일치하지만, 차이를 보이는 어휘들도 있었다(장유경, 2004a). 8~17개월에 가장 많이 표현하는 어휘 중 1-10위는 일상생활 용어(예: 까꿍, 네/응, 똘이똘이), 사람의 이름(예: 엄마, 아빠), 음식이름(예: mamma, 물, 과일/까까), 소리(예: 멍멍) 혹은 동물이름(예: 멍멍이)이었다. 이 중에서 이해어휘와 일치하는 것은 ‘까꿍’, ‘똘이똘이’, ‘아빠’, ‘뽀뽀’였으며, 나머지 6개 단어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차이에 대해 장유경(2004a)은 어머니가 많이 사용하여 영아가 이해는 하지만 발음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의 가

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종단적으로 9개월간의 월령 범위를 통합하여 분석한 것으로 발달적 변화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월령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를 비교하고, 월령간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각각의 발달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 어휘들의 종단적 변화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본 연구의 목적을 정리하면, 첫째 영아초기 어휘발달에서 안정성을 살펴보고, 둘째, 어휘 수와 어휘의 내용을 통해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발달적 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대구, 군산에 거주하는 393쌍의 어머니와 영아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8, 12, 15, 18개월에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어휘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시기는 기준 월령에서 일주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였다(출생일-측정일±7). 예를 들면 8개월은 7개월 23일~8개월 7일 사이에 측정하였다. 이 준거는 모든 월령에 적용되었다. 영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가 208명이고 여아가 184명이었다. 영아 출생시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는 평균 30.46세 ($SD=3.58$), 아버지는 평균 33.17세 ($SD=3.87$)이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졸업이 각각 38%로 가장 많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하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12~

16년(고등학교~대학교)정도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수입은 101-200만원(31%)과 201-300만원(3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1-400만원(14%), 401-500만원(10%), 500만원 이상(6%) 순이었다.

측정도구

어휘체크리스트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MacArthur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y(이하 MCDI)를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영아에게 맞게 일부 수정하여 영유아용 어휘 체크리스트와 유아용 어휘체크리스트(배소영, 2002)를 사용하였다. 여러 연구들에서 부모가 작성한 어휘체크리스트가 아동의 언어를 측정하는데 타당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Olson, Bates, & Baley, 1982). 특히 Reznick과 Goldsmith(1989)는 어휘체크리스트는 부모가 아동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조직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일기 형식의 연구보다 장점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절차

검사자가 영아의 집을 방문하여 보호자에게 어휘체크리스트 작성법을 설명하고,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8, 12, 15개월에는 영유아용을 사용하였고, 18개월에는 유아용을 사용하였다. 영유아용은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각 284개 어휘로 구성되었고, 유아용은 661개의 표현어휘로 구성되어있다. 표현어휘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의하거나, 모방하거나, 우연하게 발화한 경우는 제외하였고 참조물이 없을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발화한

어휘들이었다. 이해어휘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듣고 이해하는 어휘로서 이 중에서 표현어휘는 제외되었다.

자료처리

어휘 수의 연령별 변화, 개인차의 안정성, 및 표현어휘와 이해어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차이검증, 변량 분석, 및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

결 과

어휘발달의 월령 및 성별에 따른 변화

어휘 습득의 월령과 성별에 따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월령(4)X성별(2)X어휘(2)간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는 월령별 표현어휘 수와 이해어휘 수에 대한 평균, 표준

표 1. 월령별 어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개월	어휘종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최소	최대
8	표현	393	2.67	4.64	.00	50.00
	이해		19.74	29.55	.00	284.00
12	표현	372	13.38	23.12	.00	189.00
	이해		70.58	48.76	.00	266.00
15	표현	340	28.66	38.57	.00	232.00
	이해		120.99	60.53	.00	275.00
18	표현	334	61.73	79.16	.00	508.00

표 2. 성별에 따른 어휘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어휘종류	사례수	8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표현	244	2.64	2.34	13.57	13.38	26.68	32.74	54.87	66.42
		(5.38)	(2.24)	(24.38)	(20.24)	(39.33)	(37.98)	(79.66)	(79.91)
이해	280	17.24	18.38	70.88	70.41	118.59	123.99		
		(23.79)	(25.22)	(47.19)	(45.72)	(60.92)	(58.04)		

편차, 및 범위가 제시되었고, 표 2에는 성별에 따른 어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는 증가하였다. 월령에 따라 어휘 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현어휘, $F(3, 726)=103.05, p<.001$; 이해어휘, $F(2, 556)=681.84, p<.001$.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어휘는 12개월에는 70개로 50개를 넘어섰으며, 표현어휘는 18개월에 61개가 되었다. 표현어휘의 경우, 15개월에서 28개에서 18개월에 61개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체크리스트의 버전이 바뀐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용 체크리스트(8~17개월)는 전체 어휘수가 284개인 반면, 유아용(18~36개월)은 641개이다. 그러나 횡단연구(장유경, 2004a)에서 영유아용을 사용한 17개월의 표현어휘 수가 53.25개였음을 감안할 때, 측정도구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인 발달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월령별 평균과 중앙치를 비교해 보면, 표현어휘의 경우, 8개월 평균 2.67개(중앙치 2.00), 12개월 평균 13.38개(중앙치 5.00), 15개월 28.66개(중앙치 14.00), 18개월 평균 61.73개(중앙치 32.50)였다. 이와 같은 평균과 중앙치간의 차이는 18개월까지 표현어휘는 편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해어휘의 경우, 8개월 평균 19.74개(중앙치, 11.00), 12개월 평균

70.53개(중앙치 60.00), 15개월 평균 120.99개(중앙치, 113.00)였다. 표현어휘와는 달리, 15개월이 되면 평균과 중앙치가 거의 비슷해졌다. 따라서 이해어휘의 경우 15개월이 되면 어느 정도 정상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성별에 따른 월령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는데, 남아와 여아 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15개월에는 미세하지만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18개월에는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휘발달의 안정성

어휘발달에서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월령에 따른 어휘수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8, 12, 15, 18개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 값을 살펴보면, 첫째, 표현어휘들 간 혹은 이해어휘들 간의 상관인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간 상관보다 높았다. 예를 들면, 18개월 표현어휘와 15개월 표현어휘와 .71의 상관을 보인 반면, 15개월 이해어휘

와는 .18의 낮은 상관을 보였다. 둘째, 시간적으로 근접한 월령들 간의 상관 값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8개월 표현어휘는 12개월 표현어휘와는 .38, 15개월 표현어휘와는 .22, 그리고 18개월 표현어휘와는 .05의 상관이 있었다. 셋째, 월령이 높아질수록 상관 값이 높았다. 예를 들면, 8개월과 12개월 표현어휘는 .38의 상관을 보인 반면, 15개월과 18개월 표현어휘는 .71의 상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영아초기 어휘 능력에서 개인차는 유지되지만, 어휘수가 너무 적은 초기 발달차에 근거하여 추후 발달을 예측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며, 후반으로 갈수록 안정성은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에서 월령에 따른 어휘들 간의 상관표에서 표현어휘들 간 혹은 이해어휘들 간 상관이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간 상관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어휘들 간의 독립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상대적인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8, 12, 15개월의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18개월 표현어휘를 종속변인으로 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15개월 표현어휘는

표 3. 8, 12, 15, 18개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간의 상관

월령	어휘종류	8		12		15		18
		표현	이해	표현	이해	표현	이해	표현
8	표현	1.00						
	이해	.201***	1.00					
12	표현	.385***	.244***	1.00				
	이해	.175**	.539***	.183***	1.00			
15	표현	.225***	.114*	.473***	.261***	1.00		
	이해	.040	.406***	.202***	.657***	.072	1.00	
18	표현	.058	.201***	.376***	.345***	.713***	.186**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18개월 표현어휘에 대한 8, 12, 15개월 표현/이해 어휘의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	R ²	β	F
18개월 표현어휘	15개월 표현어휘	.700	.490	.700	232.850***
	8개월 표현어휘	.716	.513	-.156	127.080***
	12개월 이해어휘	.731	.534	.152	91.719***

*** $p < .001$

18개월 표현어휘의 49%를 설명할 수 있으며, 8개월 표현어휘와 12개월 이해어휘는 각각 약 2% 정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어휘 수 집단의 어휘 발달차이 습득어휘수에 근거하여 영아들을 5-6집단으로 구분하여, 이후 표현어휘에서 차이가 유지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어휘발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집단 구분은 Caselli 등(1995)의 연구에 근거하였으며, 영아의 표현어휘수의 분포를 참조하였다. 이에 따라 표현어휘는 12개월과 15개월 어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해어휘는 12개월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집단은 표현어휘의 경우, (1) 0-5개, (2) 6-10개, (3) 11-20개, (4) 21-50개, (5) 50개 이상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해어휘의 경우, (1) 0-20개, (2) 21-50개, (3) 51-100개, (4) 101-150개, (5) 151-200개, (6) 201개 이상의 6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어휘능력에 따른 발달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으며, 집단간 변인은 습득한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수이고 종속 변인은 18개월 표현어휘(표현어휘의 경우)와 15개월 이해어휘(이해어휘의 경우)였다. 분석 결과가 표 5, 6,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어휘의 경우, 12개월 표현어휘 수에 근거하여 5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18개월 표현어휘 수에서 유의한

표 5. 12개월 표현어휘집단에 따른 18개월 표현어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12개월 표현어휘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F
5개 이하	142	38.39	51.53	a	19.97***
6-10	52	55.29	64.25	a	
11-20	49	66.53	71.37	a	
21-50	34	145.47	121.80	b	
51이상	14	150.86	128.81	b	

*** $p < .001$

표 6. 15개월 표현어휘집단에 따른 18개월 표현어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15개월 표현어휘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F
5개 이하	64	22.23	49.13	a	48.04***
6-10	50	26.62	26.45	a	
11-20	64	35.38	30.27	ab	
21-50	60	65.25	50.86	b	
51이상	55	158.98	113.18	c	

*** $p < .001$

차이를 보였다, $F(4, 286) = 19.97, p < .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12개월 표현어휘가 20개 이하인 집단(3 집단)과 20개 이상인 집단(2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표 6에서 15개월 표현어휘 수에 근거하여 5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18개월 표현어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4, 288) = 48.04, p < .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15개월 표현어휘가 20개 이하인 집단(3 집단), 21개 이상 50개 이하인 집단(1 집단), 그리고 51개 이상인 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특히 51개 이상인 집단은 나머지 4집단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12개월이나 15개월에 같은 월령의 영아들에 비해 표현어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아는 18개월에도 표현어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표 7. 12개월 이해어휘집단에 따른 15개월 이해어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집단 (12개월이 해어휘수)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구분	F
0-20	30	66.47	56.42	a	42.18***
21-50	86	94.09	46.26	ab	
51-100	119	119.79	43.13	b	
101-150	40	176.23	39.18	c	
151-200	19	200.53	57.64	c	
201 이상	6	214.50	41.36	c	

*** $p < .001$

이것은 개인차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동일 월령 내에서 개인차를 구분하는 지표는 12개월에는 표현어휘 20개, 15개월에는 표현어휘 50개임을 알 수 있다

표 7에 따르면, 이해어휘의 경우, 12개월 이해어휘 수에 근거하여 6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15개월 이해어휘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5, 294) = 42.18, p < .001$.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20개 이하인 집단, 21개 이상 100개 이하인 집단(2 집단), 그리고 101개 이상인 집단(3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12개월과 15개월 사이에 이해어휘에서 개인차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해어휘에서 개인차를 구분하는 지표는 12개월 이해어휘 100개임을 알 수 있다

12개월 상중하 집단의 월령별 평균점수 비교 앞서 살펴본 어휘 발달의 안정성은 어휘 수의 차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차이가 유지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개별 월령의 차이를 비교한 것으로, 집단의 차이가 측정된 4개 월령들 사이에 계속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확장 혹은 축소되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휘 수에 근거하여 3집단을 구분한 후, 각 월령에서 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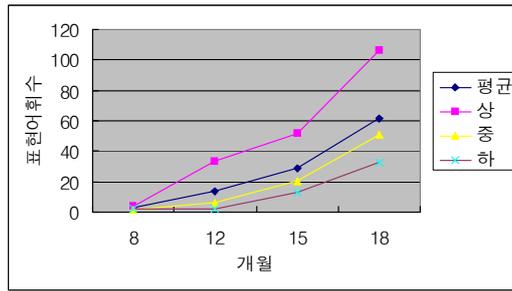


그림 1. 12개월 표현어휘의 세(상/중/하) 집단의 8-18개월 표현어휘 습득 수

득어휘 수의 평균을 비교하여 집단간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집단 구분은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로 구분하였다. 8개월은 평균 표현어휘수가 2.68개이며, 이 시기 어휘는 상징성을 가정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Bates et al., 1977; 이승복, 1982), 12개월 표현어휘 수를 기초로 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림 1을 통해 8-18개월 사이 표현어휘 발달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표현 어휘발달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또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차이가 월령이 증가하면서 커지고 있다. 이것은 마태효과(Stanovich, 1986)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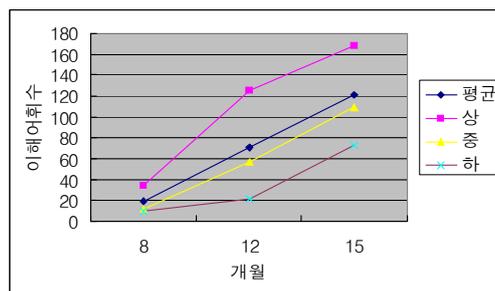


그림 2. 12개월 이해어휘의 세(상/중/하) 집단의 8-15개월 이해어휘 습득 수

그림 2를 통해 8-15개월 사이 이해어휘 발달에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해어휘 발달이 안정적임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표현어휘와 달리, 8개월과 12개월 사이에는 집단간 차이가 커졌으나, 12개월과 15개월에서는 집단간 차이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일집단 잔류 영아의 비율 다음으로 영아들이 지속적으로 동일 집단에 속하는지를 통해 어휘발달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우선 12개월을 기준으로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각각 상위 30%와 하위 30%에 속하는 영아들이 15개월과 18개월에 지속적으로 동일 집단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였다. 15개월 혹은 18개월에만 동일집단에 속하는 영아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분석에는 8, 12, 15, 18개월 자료가 모두 있는 영아들을 모집단으로 하였으며, 표현어휘는 244명이고 이해어휘는 281명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표현어휘의 경우, 12개월 상위집단에 속하는 영아 73명 중에서 15개월에는 44명이 남았고, 44명 중에서 31명은 18개월에도 지속적으로 상위집단에 남아있었다. 12개월(73명)을 기준으로 동일집단 잔류 영아의 비율을 살펴보면, 15개월에는 61%, 18개월에는 42%였다. 하위 집단의 경우, 12개월에 표현어휘 하위집단에 속한 72명의 영아 중 15개월에는 44명이 남았고, 이 중에서 32명은 18개월에도 지속적으로 하위집단에 남아있었다. 비율은 15개월에는 60%, 그리고 12개월에는 44%였다. 요약하면, 12-18개월 사이에 영아들 중 약 40%는 언어발달에서 상대적 지위가 안정적이었다.

다음으로 이해어휘의 경우, 12개월에 상위

집단에 속하는 85명중 53명이 15개월에도 동일집단에 남아있었다.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12개월 하위집단에 속하는 84명 중 53명이 15개월에도 하위집단에 남아있었다. 비율을 살펴보면, 상위집단은 68%, 하위집단은 63%가 지속적으로 동일집단에 속했다. 이 수치는 표현어휘에서 12개월과 15개월간 안정성과 유사하다.

추가적으로 8개월 표현점수 30%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해보면, 상위집단 영아 83명 중 14명(16%)이 18개월에도 상위집단에, 그리고 하위집단 영아 68명 중 13명(19%)이 하위집단에 남았다. 12개월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가 남아있던 것에 비해, 절반정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12개월 이후 어휘 수가 이후 어휘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Bates et al., 1995; Thal et al., 1998)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어발달지체와 관련되어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발달 지체의 기준이 되는 10 퍼센트(1.28SD)로 12개월 어휘 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표현어휘의 경우, 하위집단에 속하는 27명 중 15개월에는 9명(33%)이 그리고 이중에서 4명(14%)만이 18개월에도 여전히 하위 10 퍼센트 집단에 속했다. 이해어휘의 경우, 하위집단에 속하는 29명 중 17명(58%)이 15개월에도 하위 집단에 속했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차이는 전체 분포에서 이해어휘가 상대적으로 정상적 분포에 근접했다는 것에 근거하는 듯이 보인다. 또한 30%를 기준으로 한 비율의 안정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표현어휘의 경우 비율이 44%에서 14%로 낮아졌다. 따라서 12개월

기준으로 일반적인 발달의 안정성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만, 지체를 평가하는 것은 예측력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해어휘와 표현어휘간의 관계

앞에서 나온 상관표(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수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사이에 공통된 요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휘 수 뿐 아니라 어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어휘 수에 따른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간의 관계 이해어휘와 표현어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표현어휘를 통제하고 이해어휘의 차이가 표현어휘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표현어휘 수가 하위 30%에 속한 영아를 선별하였다. 그런 다음 이해어휘 수에 근거하여 상위 (30%) 집단과 하위(30%)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의 표현어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8개월 표현어휘 하위집단의 표현어휘 수는 0이었고 이해어휘 수는 2개였다. 상위집단은 표현어휘 수는 0이

었고 이해어휘 수는 55개였다. 이 두 집단의 표현어휘 수와 이해어휘 수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 표현어휘는 모두 0으로 동일한 집단이며, 이해어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2.11) = -5.36, p < .001$. 따라서 이 두 집단은 표현어휘는 동일하고 이해어휘에서만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18개월 표현어휘에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면, 하위집단은 57개이고 상위집단은 67개였다. 이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18개월 어휘 분포에 따르면 57개는 68.0%~68.9%에 속하는 점수이고 67개는 72.8%~73.1%에 속하는 점수이다. 이 결과는 8개월의 이해어휘에 근거해서 18개월 표현어휘의 차이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12개월 하위집단의 표현어휘 수는 1개이고 이해어휘 수는 21개였다. 상위집단은 표현어휘 수는 2개이고 이해어휘 수는 120개였다. 이 두 집단의 어휘 종류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표현어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t(68) = -1.31, p = .19$, 이해어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36.34) = -12.67, p < .001$. 따라서 이 두 집단은 표현어휘는 동일하고 이해어휘에서만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18개월 표현어휘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하위 집단은

표 8. 8개월 표현어휘수 하위 집단의 18개월 표현어휘 수 평균과 표준편차

	8개월				18개월	
	표현어휘		이해어휘		표현어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하위	0	0	2.24	2.47	57.31	75.88
상위	0	0	55.45	57.00	67.38	74.02

표 9. 12개월 표현어휘 수 하위 집단의 18개월 표현어휘 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12개월				18개월	
	표현어휘		이해어휘		표현어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하위	1.80	1.28	21.43	8.44	22.80	23.39
상위	2.17	1.07	120.43	45.43	50.69	56.71

표현어휘가 23개이고 상위 집단은 51개였다. 이 차이는 유의했다, $t(33.53) = -2.31, p < .05$. 23개는 18개월 표현어휘 분포에 비추어 볼 때 38.9%~39.8%에 속하는 점수이고 51개는 64.1%~64.7%에 속하는 점수였다. 이 결과는 12개월 이해어휘는 18개월 표현어휘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 둘에 공통적으로 관여하는 잠재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어휘 내용에 따른 이해어휘와 표현어휘 간의 관계 어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에 따라 상위 10위권에 들어있는 표현어휘와 이해어휘를 선별하여, 둘이 서로 일치하는지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8개월에는 7개 단어(엄마, 아빠, 맘마, 짹짹, 빠이빠이, 까꿍, 뽀뽀)가 일치하고 12개월에는 6개 단어(빠이빠이, 까꿍, 짹짹, 곤지곤지, 뽀뽀, 도리도리)가 일치하는 반면, 15개월에는 일치하는 단어가 없었다. 이것은 15개월 이전에는 부모와 영아 모두 비교적 적은 어휘군을 사용하는 반면, 15개월 이후 어휘군이 커지면서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간에 일치하는 단어가 적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 횡단연구(장유경, 2004a)에서 8~17개월 영아의 표현어휘와 이해어휘 각 10위권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비교한 결과, 10단어 중 4개 단어만 일치했다는 결과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일치율이 낮아지는 것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어휘와 이해어휘가 일치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8개월과 12개월에 ‘짹짹’, ‘빠이빠이’, ‘까꿍’, ‘뽀뽀’는 유희적/사회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아와 어머니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12개월에 엄마, 아빠, 맘마가 이해어휘에서 순위가 낮아진 것이 단어들이 표현어휘에서 1-3위에 속하는 것에 기초하여 해석할 수 있다.

표현어휘와 이해어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살펴보면, 8개월에는 표현어휘 3개(짹짹, 도리도리, 곤지곤지), 이해어휘 3개(안돼, 하지마, 할머니), 12개월에는 표현어휘 4개(엄마, 아빠, 맘마, 과자/까까), 이해어휘 4개(하지마, 쥐/주세요, 안돼, 공)이고, 15개월에는 표현어휘 10개(엄마, 아빠, 맘마, 네/응, 물고기, 까꿍, 멍멍, 빠이빠이, 과자/까까, 개/멍멍이)와 이해어휘 10개(전화, 기저귀, 공, 하지마, 신/신발, 짹짹, 책, 컵, 숟가락, 누워)였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표현어휘의 경우, 8개월은 특정 대상(참조물)이 없는 행동에 동반되는 의성어로 볼 수 있으며, 12개월이 되면 구체적인 참조물이 등장한다. 15개월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를 보면 ‘네/응’, ‘물고기’, ‘멍멍’, ‘개/멍멍이’로서 지시에 대한 반응인 ‘네/응’과 주변에서 친숙한 사물인 물고기와 개가 나타난다. 이해어휘의 경우, 8개월과 12개월에는 ‘안돼’, ‘하지 마’, ‘주세요’와 같은 영아의 행동을 통제하는 단어들이 나타나며, 15개월이 되면, 영아의 생활과 밀접한 명칭들이 등장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영아초기에 습득하는 어휘는 실질적인 사회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아초기 어휘는 의사소통적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조명한, 1982), 어휘의 특성은 표현어휘는 주로 영아가 사용하는 어휘인 반면, 이해어휘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어휘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장유경, 2004a).

실제로 영아들이 각 월령에서 습득하는 어휘를 알아보기 위해, 어휘별로 월령간 차이점 수 순위를 근거로 월령별로 가장 많이 영아가 습득하는 어휘의 순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현어휘의 경우, 8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영아들은 ‘맘마’, ‘아빠’, ‘까꿍’, ‘과자/까까’, ‘빠이빠이’, ‘물고기’, ‘네/응’, ‘곤지곤지’, ‘도리도리’, ‘뽀뽀’를 습득하였다. 12개월과 15개월 사이에 습득하는 단어 중 새로운 것은 ‘명명’, ‘물고기’, ‘개/명명이’, ‘빵빵’, ‘얌얌’, ‘붕’, ‘쉬’였다. ‘명명’과 ‘개/명명이’가 개를 ‘빵빵’과 ‘붕’이 차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개’, ‘물고기’, ‘차’와 같은 주변의 친숙한 대상에 대한 명칭을 습득하고, 식사나 배변과 관련된 일상생활 단어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어휘의 경우, 8개월과 12개월 사이에 영아들은 ‘주세요’, ‘전화’, ‘깍’, ‘곤지곤지’, ‘지지’, ‘안녕’, ‘책’, ‘공’, ‘손가락’, ‘도리도리’를 이해하게 된다. 12개월과 15개월 사이에는 ‘딸기’, ‘신어’, ‘내려가’, ‘내려’, ‘단아’, ‘벗어’, ‘씻어’, ‘가방’, ‘씨’, ‘올라가’를 이해하게 된다. 12개월 이전에는 주로 구체적인 주변 사물에 대한 명칭이거나 혹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단어들이던 반면, 12개월 이후에는 동적 활동을 나타내는 단어들(동사)이었다. 이것은 12개월 이후 영아의 이동능력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첫째 영아초기 어휘발달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둘째, 이해어휘와 표현어휘의 발달적 관계에 대해 살

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전반적인 월령별 어휘발달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면, 월령이 증가하면 어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횡단 연구들(장유경, 2004a, 2004b)에서 확인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언어발달의 월령별 분포로서, 표현어휘는 18개월에도 편포된 반면 이해어휘는 15개월에 정상분포에 근접하였다. 이것은 영아초기의 어휘 수에 근거하여 영아의 언어능력을 평가할 때 신중해야함으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영아 초기에 보이는 부적 편포 현상은 집단 평균을 사용할 경우 월령집단으로서 영아의 언어 능력을 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개별영아의 상대적인 평가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인 어휘발달의 안정성을 확인한 결과, 영아초기동안 어휘발달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과 관련된 몇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데, 첫째, 표현어휘들 간 혹은 이해어휘들 간에 안정성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관이 높아졌다. 이것은 10개월 어휘로 16개월의 지체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13개월에는 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Thal 등(199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Reznick과 Goldsmith(1989)의 연구에 12개월에 부모의 반응에서 나타난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집단에 남아있는 영아들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12개월 표현어휘를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경우에는 18개월에 약 40%의 안정성을 보인 반면, 8개월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약 20%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영아초기 어휘에 근거

한 영아후기의 언어발달에 대한 신빙성 있는 예측은 12개월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휘발달에서의 개인차는 전반적으로 유지되지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의 월령간 상관은 유의하였으며 이것은 개인차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집단으로 구분하여 어휘발달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특정 월령에서 영아를 구분하는 어휘수(이정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12개월은 표현어휘 20개 이상과 이하 집단으로 그리고 15개월은 표현어휘 50개 이상과 이하 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는 듯하다. 이것은 Bates 등(1995)이 제안했듯이, 표현어휘 수가 50~100개에 이르렀을 때 어휘 습득이 가속화된다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표현어휘 50개 이상의 집단에서 어휘 폭발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12개월에 상대적으로 어휘가 많았던 영아는 18개월에도 상대적으로 어휘가 많을 것이며, 12개월에 5개 어휘를 알고 있는 영아와 15개 어휘를 알고 있는 영아 간 차이는 무시할 수도 있지만, 15개 어휘를 알고 있는 영아와 20개 어휘를 알고 있는 영아 간 차이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과 그 차이가 의미 있는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영아 초기에 나타나는 개인차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휘에 근거한 언어발달의 개인차를 해석할 때, 12개월에는 표현어휘 20개 그리고 15개월에는 표현어휘 50개가 개인차를 해석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휘 습득 속도는 모든 영아들에서 동일하지 않다. 본 연구 결과,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은

비교적 완만한 발달 곡선을 보인 반면, 상위 집단은 15개월과 18개월 사이에 다소 급격한 상승 현상을 보였다. 이것은 어휘 폭발이 모든 영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와 일치한다(Bates & Carnevale, 1993). 즉 어떤 영아의 어휘 증가는 점진적이고 완만하다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연속적인 말소리의 해석능력(Fernald, Pinto, Swingley, Weinberg, & McRoberts, 2001), 유목화 능력(Gopnik & Melzoff, 1987), 언어의 화용론적 사용에 대한 이해(Ninio, 1995) 등의 인지능력의 영향과 관계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한국 영아들에게 어휘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가 23~24개월(장유경, 2004b)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자료를 어휘 폭발과 관련되어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18개월 이후 자료와 비교하여, 어휘증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해어휘와 표현어휘는 습득에서 발달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 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잠재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 이해어휘의 차이는 이후 표현 어휘의 차이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아직 소리 내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후 표현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성숙이나 연습을 통해 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결과는 Senechal(199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현어휘와 이해어휘의 내용에서 발달적 차이를 통해 어휘의 의사소통적 가치와 발달적 맥락이 어휘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개월 이후에야 영아의 어휘는 참조물에 대한 상징적 표현인 진짜 단어가 되지만 여전히 의사

소통적 기능을 하는 어휘들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승복, 1982). 또한 15개월에 동사의 습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영아의 운동능력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신어, 내려, 닫아, 씻어, 올라가 등의 동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어휘발달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 변인과 부모 변인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영아의 인지적 요인(예, 지능)과 사회정서적 요인(예, 기질, 애착)들과의 관련성과 함께, 부모 요인(예, 언어적 능력이나 학력, 신념)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의 어휘에 대한 직접 측정이 아닌 어머니의 보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학력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Bates 등(1995)과 Reznick과 Goldsmith(1989)는 영아의 어휘발달에 대한 어머니 보고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지만, Fenson, Dale, Reznick, Bates와 Thal(1994)은 8-10개월에 상위 극단치를 보이는 영아들의 경우는 어머니의 '이해'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과잉평가(overestimation)를 한 부모는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나 영아의 어휘를 직접 채집하는 경우, 제한된 장소와 시간으로 인한 어휘 대표성의 문제와 영아가 산출하는 단어들(특히 이해어휘)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영아의 어휘능력에 대한 측정은 직접 관찰을 통한 어휘수집(자연발화)과 어휘체 크리스트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방

법의 보완과 함께, 여러 변인들과 어휘발달 간 상호작용을 밝혀냄으로써 영아기 어휘 발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배소영 (2002). MCDI-K 영유아용. 한국영아발달연구센터.
- 이승복 (1982). 단일단어 조명한 제,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pp.21-44).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장유경 (2004a). 한국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 77-99.
- 장유경 (2004b). 한국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 4, 91-105.
- 조명한 (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 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Bates, E. (1976). Pragmatics and sociolinguistic in child language. In D. Morehead & A. Morehead (Eds.), *Normal and deficient child language*.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Bates, E., Benigni, L., Bretherton, I., Camaioni, L., & Volterra, V. (1977). From gesture to the first word: On cognitive and social prerequisites. In M. Lewis & L. Rosenbaum (Eds.), *Interaction, conversation, and development of language*. New York: Wiley.
- Bates, E., Bretherton, I., & Snyder, L. (1988). *From first words to gramma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tes, E., & Carnevale, G. F. (1993). New directions in research on language development. *Developmental Review*, 13, 436-470.
- Bates, E., Dale, P., & Thal, D. (1995).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theories of language development. In P. Fletcher

- & B. MacWhinney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 96-151). Oxford, England: Blackwell.
- Bates, E., Thal, D., Fenson, L., Whitesell, K., & Oakes, L. (1989). Integrating language and gesture in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004-1019.
-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The use of single-word utterances before syntax*. The Hague: Mouton.
- Bretherton, I., & Bates, E. (1984).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 from 10 to 28 months. In R. N. Emde & R. J. Harmon (Eds.),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Development* (pp. 229-261). New York: Plenum.
- Caselli, M. C., Bates, E., Casadio, P., Fenson, J., Fenson, L., Sanserl, L., & Weir, J. (1995). A cross-linguistic study of early lexical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10, 159-199.
- Daneman, M., & Blennerhassett, A. (1984). How to assess listening comprehension skills of preread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 1372-1381.
- Fenson, L., Dale, P. S., Reznick, J. S., Bates, E., & Thal, D. (1994). Variability in early communicative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5), 1-185.
- Fernald, A., Pinto, J. P., Swingle, D., Weinberg, A., & McRoberts, G. W. (2001). Rapid gains in the 2nd year. In M. Tomasello & E. Bates (Eds.), *Language development: The essential readings*,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Goldin-Meadow, W., Seligman, M., & Gelman, R. (1976). Language in the two-year-old. *Cognition*, 4, 189-202.
- Gopnik, A., & Melzoff, A. (1987). The development of categorization in the second year and its relation to other cognitive and linguistic developments. *Child Development*, 58, 1523-1531.
- Halliday, M. A. K. (1974). A sociosemiotic perspective on language development.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frican Studies*, 37, 98-118.
- Halliday, M. A. K. (1975). Learning how to mean. In E. Lenneberg & E. Lenneberg (Eds.), *Foundation of language development: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Vol. 1). New York: Academic Press.
- Hirsh-Pasek, K., & Golinkoff, R. (1991). Language comprehension: A new look at some old themes. In N. Krasnegor, D. Rumbaugh, R. Schieffelsbusch, & M. Steddert-Kennedy (Eds.), *Biologic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of language development* (pp. 301-320). Hillsdale, NJ: Erlbaum.
- Huttenlocher, J. (1974). The origins of language comprehension. In R. Solso (Ed.), *Theories in cognitive psychology* (pp. 331-368). New York: Halsted.
- Markman, E., & Hutchinson, J. E. (1984). Children's sensitivity to constraints on word meaning: Taxonomic vs. thematic relations. *Cognitive Psychology*, 16, 1-27.
- McCall, R., Eichorn, D., & Hoarty, P. (1977). Transitions in early mental develop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171.
- McCarthy, D. (1954).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In L. Carmichael (ed.), *Manual of child psychology*. New York: Wiley.
- McLaughlin, B. (1978). *Second-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Hillsdale, NJ: Erlbaum.
- Nicholson, T., & Whyte, B. (1992). Matthew effects in learning new words while listening to stories. In C. K. Kinzer & D. J. Lew (Eds.), *Literacy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Views from many perspectives*. Forty-first yearbook of the

- National Reading Conference (pp. 499-503).
- Ninio, A. (1995). Expression of communicative intents in the single-word period and the vocabulary spurt. In K. E. Nelson & Z. Reger (Eds.), *Children's langu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son, S. L., Bates, J. E., & Bayles, K. (1982). Maternal perceptions of infant and toddler behavior: a longitudinal, construct validation stud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5, 397-410.
- Oviatt, S. (1982). Inferring what words mean: Early development in infants' comprehension of common object names. *Child Development*, 53, 274-277.
- Owens, R. (2001). *Language development: A introduction*. Allyn & Bacon. 이승복 역, 언어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Penno, J. F., Wilkinson, I. A. G., & Moore, D. W. (2002). Vocabulary acquisition from teacher explanation and repeated listening to stories: Do they overcome the matthew effe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 1, 23-33.
- Reznick, J. S., & Goldfield, B. A. (1992). Rapid change in lexical development in comprehension and produ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8, 406-13.
- Reznick, J. S., & Goldsmith, L. (1989). A multiple form word production checklist for assessing early language. *Journal of Child Language*, 16, 91-100.
- Robbins, C., & Ehri, L. C. (1994). Reading storybook s to kindergartners helps them learn new vocabulary word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6, 54-64.
- Senechal, M. (1997). The differential effect storybook reading on preschooler's acquisition of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Journal of Child Language*, 24, 123-138.
- Senechal, M., Thomas, E., & Monker, J.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4-year-old children's acquisition of vocabulary during storybook read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7, 2, 218-229.
- Stanovich, K. E. (1986). Matthew effects in reading: Some consequences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acquisition of literac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1, 360-401.
- Tamis-LeMonda, C. S., Bornstein, M. H., Cyphers, L., Toda, S., & Ogino, M. (1991). Language and play at one year: A comparison of toddlers and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19-42.
- Thal, D., Swaine, K., Harrison, D., & Matt, G. (1998). Prediction of language delay at 16 months of age using parent repor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717.

1차 원고 접수 : 2005. 7.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8. 19
최종게재결정 : 2005. 8. 20

The Vocabulary Development in Early Infancy : The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from 8-18 month

Ji Yeon Lee

You-Kyung Chang-Song

The Institute of Psychology Science, Hansol Educational Research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wo characteristics of early vocabulary development: the stability between 8 and 18 months of ag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he total of 393 mothers and their infa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visited the infants' home at 8, 12, 15, and 18 months in age. And the ability of infants' language was measured by the vocabulary checkli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fant's vocabulary development showed stability of individual variation across ages. Especially, the correlation of same kind of vocabulary was higher than ones of different kind of vocabulary, and the stability was stronger, as age increased. Second, the number of vocabulary at 12 months could predict the language ability at 18 months. Finally, the receptive vocabulary could predict later the expressive vocabulary. The results implied that based on the number of vocabulary acquired in early infancy, we can expect and explain later language development.

Keywords: early infancy, expressive vocabulary, receptive vocabulary, stability, communicative function